

2.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PC 이용자 특성

차 보 선
연구원, ICT통계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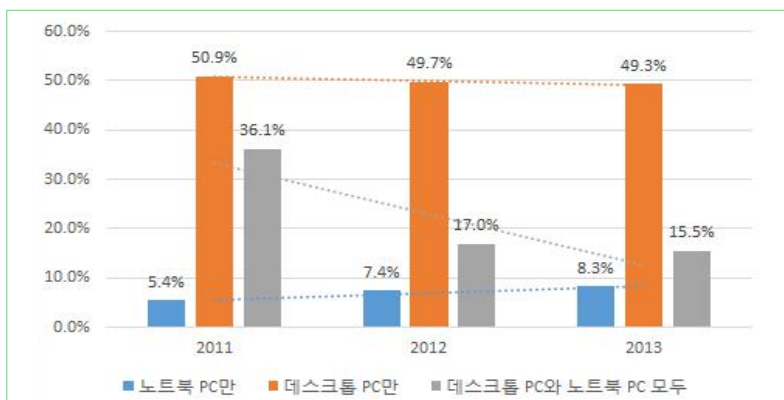
● 조사 자료 및 배경

-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 미디어 기기 이용의 개인화 확산으로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노트북 PC의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임. 데스크톱 컴퓨터 선택 시에도 획일적인 PC 완제품보다는 개인의 용도와 사양에 맞게 조립된 조립식 PC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임¹⁾
- 본 보고서는 2011년~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PC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해당 기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기 주 이용자로 정의하고 데스크톱 컴퓨터의 제조사별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PC 보유가구

-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데스크톱 컴퓨터만 보유한 가구는 2011년 50.9%에서 2012년 49.7%, 2013년 49.3%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PC만 보유한 가구는 2011년 5.4%, 2012년 7.4%, 2013년 8.3%로 증가함

(그림 1)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PC 보유 비중 추이



1) 기사: “나만을 위한 컴퓨터 맞춤형 조립식 PC”, 한국경제 2012. 4. 10.

-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PC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2011년 36.1%, 2012년 17.0%, 2013년 15.5%로 2년 새 20.6%p 감소함

● **노트북 PC와 데스크톱 컴퓨터 보유여부 특성**

- 각 기기를 보유한 가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트북 PC와 데스크톱 PC 각각 단일 이용자나 복수 이용자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노트북 PC만 이용하는 사람 중 6.5%가 10대로 동일 연령대의 다른 이용자의 비해 낮게 나타났고, 30대의 경우는 노트북 PC 단일 이용자 비율이 32.6%로 다른 그룹보다 높으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데스크톱 PC 단일 이용자가 13%로 동일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두 기기 모두 이용자는 40대가 26.4%로 높게 나타남

〈표 1〉 노트북 PC와 데스크톱 PC 이용자 특성 비교(2013년)

		노트북 PC 단일 이용자	데스크톱 PC 단일 이용자	노트북 PC/데스크톱 PC 복수 이용자
전체 이용자수		230명	2135명	683명
성별	남성	59.6%	63.0%	62.8%
	여성	39.6%	36.4%	37.0%
연령 대별	10대 미만	1.3%	1.4%	1.3%
	10대	6.5%	17.1%	16.4%
	20대	18.7%	15.2%	19.9%
	30대	32.6%	20.9%	18.3%
	40대	23.0%	22.0%	26.4%
	50대	10.4%	13.0%	13.0%
	60대 이상	6.5%	13.0%	4.4%

- 직업별로는 전체적으로 데스크톱 PC단일 이용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사무직의 경우 노트북 단일 이용자와 노트북 데스크톱 복수 이용자의 비중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음
- 생산직/노무직의 경우 비중이 81.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데스크톱 단일 이용자가 높고, 주부의 경우 사무직 이후 복수 이용자가 24.7%로 높음

〈표 2〉 노트북 PC와 데스크톱 PC 이용자 직업별 특성 비교(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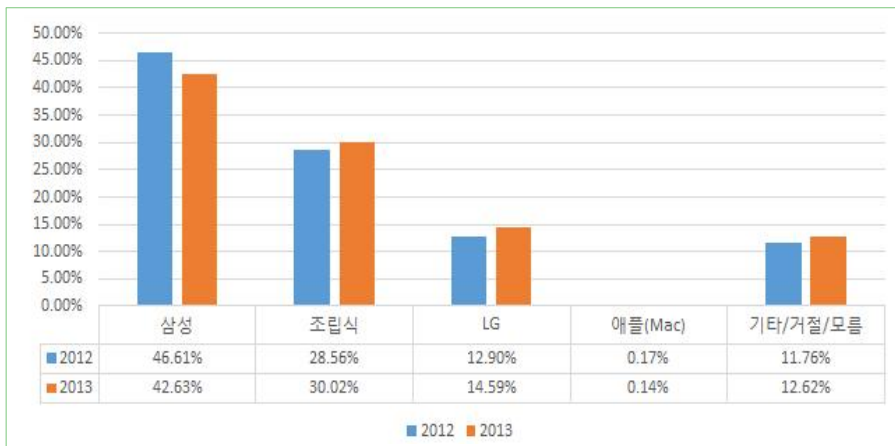
	데스크톱 PC 단일 이용자	노트북 PC 단일 이용자	노트북 PC/데스크톱 PC 복수 이용자
사무직	59.9%	11.2%	28.8%
서비스/판매직	72.6%	9.7%	17.7%
생산직/노무직	81.3%	4.8%	13.9%
학생	70.9%	6.0%	23.1%
주부	69.8%	5.6%	24.7%
기타	70.4%	6.4%	23.2%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는 서비스/판매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는 생산직/노무직으로 분류하였음)

● 제조사별 데스크톱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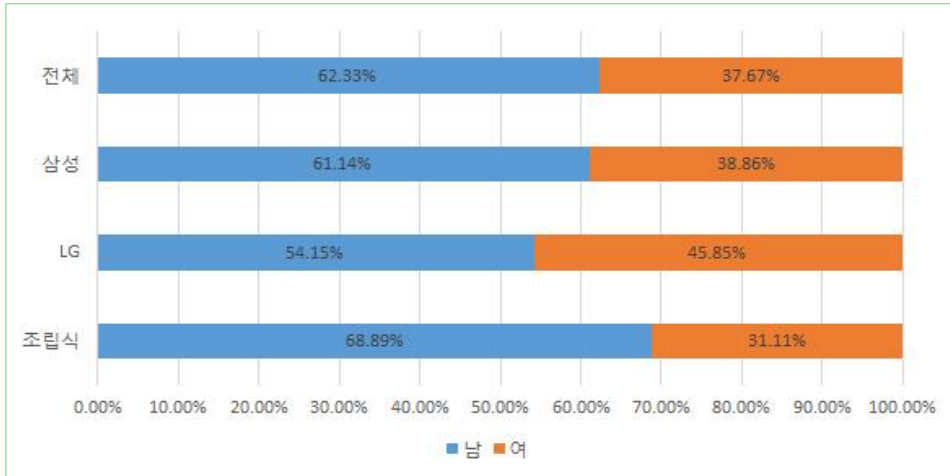
- 가구 내 데스크톱 컴퓨터 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데스크톱 컴퓨터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조립식 데스크톱 컴퓨터가 높게 나타남
- 삼성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전년대비 4.0%p 감소하였으며 조립식 컴퓨터는 전년대비 1.5%p 증가함

〔그림 2〕 제조사별 데스크톱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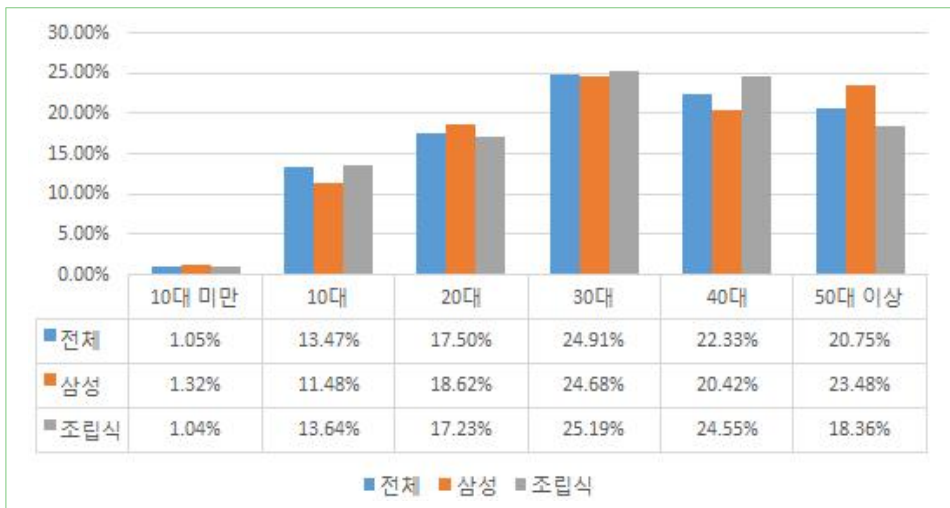
- 제조사 별로 들여다보면, 삼성과 LG 등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의 선호가 높은 반면, 조립식 PC의 경우 남성의 선호가 커지는 양상을 보임

[그림 3] 제조사별 데스크톱 컴퓨터 성별 이용자



- 연령별 데스크톱 컴퓨터 이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삼성 제품을 조립식 컴퓨터보다 2.4%p 더 사용 하는 반면, 10대와 40대는 조립식 컴퓨터를 삼성 제품보다 2.7%p, 4.1%p 더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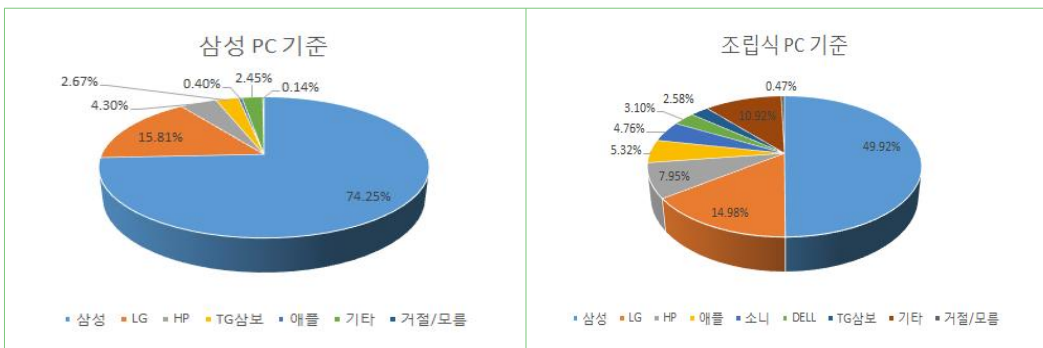
[그림 4] 제조사별 데스크톱 컴퓨터 연령별 이용자



● 동시이용자의 제조사 선택

- 삼성 데스크톱 이용자의 74.3%이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조립식 PC 이용자의 49.9%만 삼성 노트북을 선택함
- 삼성 데스크톱 이용자는 삼성과 LG의 국내 브랜드 노트북을 90% 이상 이용하지만, 조립식 PC 이용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애플의 경우, 조립식 PC 이용자는 5.3%나 선택한 반면, 삼성제품 이용자는 0.4%만 선택함

[그림 5] 동시이용자의 제조사 선택(데스크톱 제조사 기준)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데스크톱 컴퓨터만 보유한 가구는 2년 새 1.6%p 감소하였고, 데스크톱과 노트북 PC 모두 보유한 가구 역시 2년 새 20.6%p 감소한 반면, 노트북 PC만 보유한 가구는 2011년 5.4%에서 2013년 8.3%로 2년 새 2.9%p 증가함
- 1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노트북 단일 이용자의 이용률이 동시이용자나 데스크톱 단일 이용자에 비해 낮은 반면, 30대는 노트북 단일 이용자가, 40대는 두 기기 복수 이용자가 가장 높음.
-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데스크톱 단일 이용자의 비중이 높으나, 사무직의 경우 노트북 단일 이용자와 노트북 데스크톱 복수 이용자의 비중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고, 생산직/노무직의 경우 81.3%로 데스크톱 단일 이용이 가장 높음
- 2012년 대비 2013년 삼성 데스크톱 컴퓨터의 이용은 감소하였으며, 조립식 컴퓨터 이용은 증가하였는데, 개인의 용도와 취향 반영의 용이함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삼성과 LG 등 브랜드 제품은 전체 이용자 대비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조립식 PC는 남성의 선호가 높음

- 20대 남성의 경우, 삼성 제품 보다 조립식 컴퓨터의 사용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삼성 제품의 사용이 조립식 컴퓨터 보다 높음.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삼성 컴퓨터 사용이 조립식 컴퓨터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는데, 이는 20대 여성의 디자인과 브랜드 사용 등 유행에 민감한 경향으로 보임
- 삼성 데스크톱 이용자중 90% 이상이 삼성과 LG 제품의 노트북을 선택한 반면, 조립식 PC 이용자는 삼성과 LG 이외의 좀 더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삼성 데스크톱 이용자의 비해 조립식 PC 이용자가 애플 제품을 13배나 더 선택함